

대만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 현황*

曾 天 富**

< 次 例 >

- I. 머리말- 대만 사회의 이해를 위하여
- II. 대만의 언어 정책
- III. 대만의 국어교육 현황
- IV. 맺는 말- 현행 대만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쟁점

I. 머리말-대만 사회의 이해를 위하여

대만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근대이래의 역사적 상황과 대만 사회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수 구성원의 실제 언어생활이란 현실적 기초가 언어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만의 경우는 단일민족에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식민지 경험은 공유하지만 전후 독립과 국민국가로의 발전에 있어 대만인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에 있어 특수한 양상

* 이 연구는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3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환교수/ 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말순, 2011: 34).

1895년 갑오전쟁의 결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대만은 자주적인 현대화가 차단되면서 향후 대만의 국어가 되는 현대중국어, 즉 백화문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물론 1920년대부터 현대교육을 받은 일부 대만의 본토 지식인들이 언문일치를 주장하고 백화문을 학습하여 문학창작을 진행하기도 했지만(증천부, 2000: 187) 대다수 민중은 현대 중국어와 차단된 언어생활을 했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1949년 국공내전의 패배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전면 철수한 후 북경지역의 언어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중국어가 국어로 확정되었고, 이후 약 50년간에 걸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의 장기적 집권과 언론과 사상에 대한 통제, 방언에 대한 억압적인 언어 정책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언어 문제는 반국민당 한 상징이 되었고, 정권교체가 완성된 2000년 이후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에 있어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대만은 인구 구성과 사회 구조에 있어 십여 족의 원주민과 중국에서 건너온 한족으로 이루어진 다족군(多族群)사회이다.¹⁾ 그리고 같은 한족이라도 명청시기를 거쳐 복건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해안지역에서 온 민남인(閩南人)과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방에서 온 객가인(客家人), 그리고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과 함께 철수한 외성인(外省人)으로 나누고 대만성 외부에서 온 외성인이란 칭호와 구분되게 그 이전부터 대만성에 거주하던 한족인 민남인과 객가인을 합쳐 따로 본성인(本省人)이라 부른다. 이들 각 족군은 각기 다른 문화 정체성과 정치 의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특히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비록 국민당 철수 이후 국어라고 불리는 현대 중국어가 통일된 관방언어로 지정되어 시행되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각 족군 고유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으

1) 여기서 족군은 동일 언어와 역사 경험을 공유하는 에스닉(Ethnic) 집단을 일컫는다.

며 이런 점들이 대만의 언어 정책 추이와 국어교육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II. 대만의 언어 정책

1. 대만 언어 정책의 연혁

대만의 어문 교육 정책의 기본 틀은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비록 일본 식민통치시기에 이미 현대적인 교육 체계가 건립되었으나 동화정책의 기초아래 국어교육은 곧 일어교육을 의미했다. 따라서 1945년 이후 국민당의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을 접수하면서 시행한 국어정책이 대만의 현대 언어 정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변천해 온 언어 정책의 연혁은 다음 몇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전후초기인 1945년에서 1949년 사이로, 이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1895년 청 조정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로 할양되었던 대만은 포츠담선언의 규약대로 1945년 10월 25일 정식으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광복구」로 지정된 대만은 특별행정제도에 의해 「行政長官公署」가 성립되어 언어를 포함한 제반 문화정책에 있어 일본잔재의 청산과 중국화가 진행되었다. 행정장관으로 대만에 부임한 陳儀는 강력한 국어교육의 시행을 당면목표로 정했고 당시의 교육부는 魏建功, 何容, 王炬 등 각급 국어시행인원과 국어교사를 몇 년간에 걸쳐 파견하였다. 대만 국어교육실시의 전반적인 계획은 1946년 4월 2일 「國語推動委員會」(국어시행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다음 6가지 강령을 반포하였다. (1)대만어를 복원하여 방언과 비교하면서 국어를 학습하게

한다. (2)국자독음을 중시한다. (3)일본어 어법을 없애고 국문 문법으로 환원한다. (4)어휘의 대조를 연구하여 어문내용을 충실히 하고 신생 국어를 건설한다. (5)주음부호를 병기하여 각 족 간의 의사를 소통하고 중화문화를 융합, 관철한다. (6)학습의욕을 제고시켜 교학효과를 증진한다. 이 강령의 중점은 일본어 잔재의 청산과 국어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대만어, 즉 閩南語를 활용하는 데 있다. 일어 잔재를 없애기 위해 1946년 10월 25일부터 신문, 잡지의 일문판을 없애고 대만 작가의 일어창작을 금지하였다. 또한 1947년 9월에는 각 급 학교에서 일어사용을 금지시키고 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되 임시방편으로 대만어 방언을 사용하게 했으나 일어 사용시 엄중처벌을 강행하겠다는 명령을 省政府에서 발령했다. 국어시행위원회에서 설립한 국어실험초등학교의 성과는 대만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국어교육에 내용과 방법을 제공했으며 여기서 발행한 「국어일보」는 향후 수십 년 간 초중등학생의 국어학습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이렇게 전후 초기의 국어시행위원회는 대만 언어 정책의 기획자이면서도 집행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86년 계엄령 해제 이전까지로, 이 시기는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부의 대만 철수로 중국대륙 각지에서 온 대규모 軍政인원이 유입되어 국어가 소통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반공정책과 연계되면서 더 한층 강화된 국어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의 국어 정책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949년, 비상시기교육강령 실시방법: 각 급 학교와 사교기관은 국어운동을 한층 강화할 것.
- 1956년, 교육청 통지: 각 중등학교에서 담화 시 가능하면 국어를 사용하고 방언사용을 피할 것
- 1966년, 각 縣市정부와 각 급 학교는 국어시행계획을 강화할 것: (1)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 국어를 사용할 것. (2)방언이나 외국어 영화의 방영을 금지. (3)가두 선전물에도 방언, 외국어 사용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선도. (4)각급 운동회에서도 방언을 사용한 보고를 금지. (5)영화관에서 방언을 사용한 번역을 못하게 선도.

- 1973년, 국어시행방법 공포: 주로 주음부호의 사용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
- 1976년, 방송법 통과: 텔레비전 방송국의 국내 방송은 국어위주로 진행하고 방언사용을 줄여 나가되 그 사용 비율은 전면적인 국어사용 전까지 新聞局에서 실제상황에 따라 제정.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 시기의 국어정책은 방언의 제한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명확하게 방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로 인해 민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대만의 국어교육의 근간이 된 주음부호의 사용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국음을 정착시켰다.

세 번째 시기는 1987년 해엄(解嚴) 이후로, 38년의 계엄이 해제되면서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黨外 민주화와 본토화 목소리가 일시에 분출되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본토언어」 교육 역시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일부분의 縣과 市에서 본토언어의 시행을 요구하면서 교육부는 과외 시간에 향토언어를 학습하게 하는 방식으로 잠정적인 대응에 나섰다. 1990년 교육부가 제기한 본토언어 교육에 대한 설명에는 여전히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마땅히 국민문화와 언어의 건립을 주요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반드시 국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방언의 학습은 과외시간을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언어 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학교에서 모어교육의 진행을 허가하였다. 1993년 4월 교육부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모어교육을 초중등학교의 정식교학활동에 포함시키되 국어교육의 시행에 방해되지 않는 전제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수요에

의해 선택수강의 방식으로 민남어와 객가어를 학습하게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1994년 8월에 「초등학교 향토교육활동과정표준」을 통과시키고 1996년부터 정식으로 모어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이 밖에 1993년 7월 입법원은 기존 방송법의 방언제한 조문을 「본국 언어를 위주로 하되 소수민족언어와 기타 소수 족군의 언어를 방송할 기회를 보장하며 특정언어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수정하였다.

이렇게 국어사용과 방언제한을 기본적으로 내세웠던 대만의 언어 정책은 90년대 들어서 정치민주화와 문화 본토화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다언어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오랜 기간 집권한 국민당 정권이 본토의식과 대만독립을 표방한 민진당 정권으로 교체된 2000년 이후로, 대만독립 정치이데올로기가 언어 정책에 반영되어 더 강한 본토언어, 모어교육, 향토언어의 주장이 대두되고 국어는 더 이상 독존적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언어 정책은 아래 몇 가지 조치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 제2관방언어 지정주장: 2002년 3월 대련당(臺灣團結聯盟)은 河洛話, 客家話, 원주민어를 제2관방어로 지정할 것을 제기했으나 각계의 반대에 부딪힘. 이와 동시에 당시의 총통 陳水扁은 영어를 제2관방언어로 제기하여 행정원장이 6년의 시간을 두고 영어를 준관방언어로 계획하겠다고 공포함.
- 언어평등법과 언어발전법 제정: 2003년 1월 교육부는 개편된 국어시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언어평등법초안을 통과시킴. 그 주요내용은 국가언어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원주민족어(阿美族語, 泰雅族語, 排灣族語, 布農族語, 噶瑪蘭族語, 卑南族語, 魯凱族語, 鄒族語, 賽夏族語, 雅美族語, 邵族語), 客家話, Ho-Lo話(台語), 華語이며, 무릇 본국의 국경 내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법률적으로 동등하며 정부는 공권력으로 그중 어떤 언어와 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초안에서 보듯이 13종의 방언과 각 족군어를 華語와 동등하게 국가언어로 병렬시키고 國語란 명칭 대신 華語를 사용했다. 또한 기존의 閩南語란 명칭을 쓰지 않고 河洛語로 대체하되, 이 역시 한자를 쓰지 않고 Ho-lo話로 표기하였으며, 게다가 台語라고 병기하면서 법률적으로 Ho-lo話만이 대만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기타 각계의 반대가 심해져 언어평등법은 교육부에서 문화건설위원회로 이송되어 국가언어발전법(초안)으로 개정되어 9월에 공포되었다. 평등법과 발전법의 주요차이는 14종 국가언어의 구체적인 명칭을 없앴다는 데 있으며 어느 초안이거나 모두 국어의 명칭을 없애고 관방언어 대신 각급 정부가 제정한 통용어와 중앙정부가 정한 통용어를 두되 이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규정을 주어 소위 공동어를 없앴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다.

- 국어시행방법 폐지: 2003년 3월 교육부는 1973년 이래 각 급 학교에서 30년간 실시해 온 국어시행방법을 폐지하여 국어의 공동어 지위를 철폐시키고 국어운동을 부정하였다.
- 향토언어교육 실시: 1996년 향토언어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정식 언어과목으로 채택되어 초등학교에서는 필수로 중학교에서는 선택으로 이수하며, 「초중등학교 9년일관교과과정 잠정요강」에 근거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반드시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의 3종 향토언어 중 하나를 택해 학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대만의 언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어 독존을 파기하고 다족군의 다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에서 華語, 즉 기존의 국어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국어가 대세이며 기타 언어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어독존에서 다언어 시대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병음 정책 역시 주음부호의 단독사용에서 여러 차례의 논란과 논쟁을 거친 후 2002년 통용병음을 채택하였다. 그 외 대만어의 병음 규정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계

속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견해와 이익이 결합되어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대만의 언어 사용 현황

앞서 본 대로 현재 대만의 언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언어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비록 표준어로 국어를 제정하고 있지만 사회일반에서는 방언이 통용되고 있는 국어+방언의 이중 언어 사용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중 국어는 대만의 4대 족군이 모두 사용가능한 주요언어이며, 현재 인구의 89.97%가 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으로 대만인구의 73%를 차지하는 민남인이 사용하는 민남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남부지방은 주로 민남어가 주요 소통언어이다. 예를 들어 1993년4월1일자 『聯合報』에서 실시한 남부지방의 회사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에서의 민남어 사용비율은 43%, 가족 혹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민남어 사용비율은 60%정도로 이는 국어사용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물론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국어사용 비율이 모어보다 높다.

정밀한 통계는 없지만 필자의 경험과 일반적인 상황에 의하면 현재 대만의 언어사용 현황은 노년세대는 자신의 모어로, 청,장년은 모어와 국어의 겸용, 소년과 아동은 거의 대부분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족군들 간의 통혼이 빈번하므로 실제 언어사용 상황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정밀한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다언어 사회에서 언어의 가치와 활력은 공리적인 요소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재의 민남어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객가어의 경우 비록 桃園, 新竹, 苗栗, 屏東 등 객가인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지만 일상 언어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이 지역을 떠나 직

장을 구할 경우 민남어 사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주민어는 객가어에 비해 더욱 더 약세에 놓여있다. 인구수도 적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漢族 강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각 원주민족의 부락에서만 사용되고 평지에서는 국어와 민남어를 공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주민족 중 平埔族은 漢族化의 시간이 길고 한인과의 통혼이 일찍 시작되어 그 언어가 이미 소실되었고, 高山族의 언어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족군의 모어인 향토언어는 유실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중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민남어도 청소년 계층에서 점차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밖에 객가어와 각 원주민어는 유실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또한 1949년 국민당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넘어온 외성인의 각 지방 방언 역시 2,3세대를 거치면서 거의 유실되었다. 모어의 유실원인은 거의 반세기에 걸친 국어독존 정책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각종 매체에 의한 문화의 집중현상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이들 각 족군의 모어는 구어는 있으나 서면어(書面語)는 없는 상태, 즉 문자표기가 정착되지 않아 모어교육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민남어와 객가어의 경우 많은 어휘를 한자로 표기하지만 이로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며, 각 족의 원주민어는 기본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취하고 있다. 이들 언어의 표기를 둘러싼 대립에는 정치적인 입장차이도 존재하여 문제가 더욱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어에 한해 문자 표기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백화문을 채택하고 있고 번체자로 불리는 정체자를 쓰되 문장부호, 字音, 部首, 筆順, 筆劃, 排寫원칙을 따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대만의 언어 환경과 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

해 언어 정책과 병음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몇 가지 논쟁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언어 정책에 관한 논쟁을 보면, 첫 번째 제2관방언어 논쟁으로, 2002년 대련당이 민남어를 제2관방언어로의 지정을 제기하자 이 주장이 족군 간의 쟁의로 변질 수 있음이 우려되어 각계의 반대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다시 河洛話, 客家話, 原住民話를 동등하게 제2관방언어로 지정하자고 수정 제기했으나, 결국 다원적인 언어문화는 발전케 하는 것이 마땅하나 관방언어는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대만독립의 입장에 있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自由時報』와 『聯合報』는 각각 찬반입장의 보도를 실으면서 논쟁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집권여당인 民進黨은 영어를 제2관방어 혹은 준관방어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당시 馬英九 타이베이시장은 세계에서 영어를 제2관방어로 지정한 나라는 모두 영미의 구식민지인 경우라면서 민족존엄과 국격 손상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실제적으로 영어를 공문서에 병기하는 문제 등에 대한 실무 공무원들의 반대도 가세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 논쟁은 정당교체 이후 언어면에서의 탈중국화 의도를 보여주는데 대련당은 민남어를 통해, 민진당은 영어를 통해 기존 국어의 독존현상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는 언어평등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2003년 교육부에서 제기한 법안으로 국경 내의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문자는 법률상 모두 평등하며 정부는 공권력으로 어떠한 언어와 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 국가언어로 제시한 것은 대만 내 모든 족군이 사용하는 모어와 그간 국어로 지칭되어왔던 華語이고, 또 Ho-lo話(즉 민남어)를 대만어로 병기하여 이 초안이 공포되자 각계의 질의가 쏟아졌다. 반대측의 의견은 우선 민남어, 객가어 등은 모두 華語의 방언으로 華語의 범위에 속하며, 민남어를 한자 河洛話가 아닌 「Ho-lo話」라고

표기하여 중화민국 법률초안에 라틴자모를 쓴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그 배후에 14종의 국가언어를 일률적으로 라틴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자 평등법은 문화건설위원회로 이송되어 국가언어발전법(초안)의 이름으로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대만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국가언어로 하며, 국어라는 명칭은 취소하고 관방언어도 지정하지 않으며, 각급정부와 중앙정부가 정한 통용어는 있지만 중앙정부가 정한 통용어를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용어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국어의 공용어 자격과 지위를 약화시킨 것이다.

세 번째는 국어시행방법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2003년 교육부가 30년 이상 시행되어온 이 방법이 실제 대만의 언어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각급학교에 폐지를 통고하였고, 이에 반대파 인사들은 기존 공용어인 국어를 폐지하려는 음모라고 하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 이데올로기로써 자연적인 언어현상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네 번째는 향토언어교육을 둘러싼 논쟁으로, 2001년부터 정식 교과과정으로 향토언어, 즉 모어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대두되었다. 반대측은 모어는 그야말로 가정에서 학습할 때만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찬성측은 모어란 전체 족군의 역사, 문화 전승과 관련된 언어로 이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책임 있는 행동이라 반박했다. 이외 향토언어교육이 기존 국어과목의 시간을 줄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국어 수준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학부모들의 지적과 이와 반대로 민간의 대만모어 서클연맹은 현재의 초등학교 필수, 중학교 선택인 향토언어 교육을 중학교에서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으로 병음 정책과 관련된 논쟁인데, 대만의 중국어교육은 줄곧 주

음부호를 사용하여 왔으며, 외국의 인명, 지명과 어휘의 로마자표기는 威妥瑪式(Wade-Giles Spelling System)을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중국대륙의 한어병음 표기법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자 국제화 추세에 부합되는 표기법의 제정 필요와 기존 표기법의 수정 요구가 생겨났다. 이와 관련된 논쟁으로 국어 로마자, 통용병음, 교회로마자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고 현재 중국어의 역음 표기는 통용병음을 정책적으로 채택했으나 일부 縣과 市에서는 한어병음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래 발생한 몇 차례의 언어 정책, 병음 표기와 관련된 위의 논쟁에서 보여주는 대로, 2000년 정당교체 이후 그간 억눌려왔던 본성인의 자아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는 본토의식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효과적인 방법보다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면도 없지 않았고 특히 정치적 입장, 즉 민진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면서 건전한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2011년 현재의 상황으로 보건데 몇 차례의 논쟁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다.

Ⅲ. 대만의 국어교육현황

1. 초중등학교의 본국어문(本國語文)교육

현재 대만의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등학교의 국어교육은 199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교육개혁과정을 거쳐 2000년에 공포된 「초중등학교 9년일관교과과정요강」(이후 九年一貫과정이라 표기)에 기초하고 있다. 따

라서 九年一貫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 단계의 국어교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1945년 해방 이래 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에 진행되어 왔던 국민교육에 개혁의 요구가 거세진 것은 90년대 초기였다. 소위 국제화, 정보화, 개성화 시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와 1987년 38년간의 정치적 계엄의 해제와 더불어 사회 각층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요구는 교육체제와 교과과정의 개혁요구로 번졌으며 그 전면적인 기폭제가 된 것이 1994년 4월 10일 소위 「교육개혁 가두시위」(敎改遊行)였다. 물론 그 이전인 1989년에 대학 교육개혁촉진회가 대학의 자주, 교수와 학생의 자치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주장했으며 이를 이어 전면적인 개혁주장인 410교육개혁가두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에서 내건 4가지 개혁안은 (1)작은 반, 작은 학교의 시행 (2)고등학교의 지역사회화와 대학교의 증설 (3)교육 현대화의 추진 (4)교육 기본법의 제정 등이었고, 그 목적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어린 시절을 주자는 취지에서 인간중심, 무구속, 개성과 다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건설에 있었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진학의 부담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교육의 자유화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시위의 결과 행정원 아래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성립되어 교육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1996년 위원회가 제출한 최고지도원칙인 「教育改革總諮議報告書」에 의해 개방, 일관, 통합의 3대 방향을 기초로 한 의무교육 9년일관과정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몇 차례의 수정과 심의를 거쳐 2000년 교육부는 「국민의무교육 초중등학교 九年一貫교과과정 잠정요강」을 발표하고 이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점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년여의 실험을 거쳐 2003년 이 과정을 확정하고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9년일관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어문분야는 본국어문과정과 향토어문과정, 영어과정을 포함하는데 때문에 국어, 즉 본국어문과정의 수업시수가 그전보다 줄어들었다. 여기서는 국어교육인 본국어문(이후 국어라 표기)

과정에 한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1) 기본이념

9년일관과정에 의한 국어교육의 기본이념은 학생들이 본국의 언어문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유로운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적인 능력 이외, 감정과 의사의 표현, 성정의 도야, 心知의 계발, 문제의 해결에 국어를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사고, 이해, 추리, 타협, 토론, 감상, 창작에 국어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생활경험을 확충하고 다원적인 시야를 개척하며, 국제사조에 적응하고, 광범한 독서흥미의 계발과 문학작품의 감상, 그리고 중화문화의 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또한 도구서를 이용하여 정보, 인터넷과 결합하여 어문학습의 넓이와 깊이를 증진시키고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의 지나친 암기위주, 생활경험과의 소외, 점수위주의 평가방식 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인성의 전면적인 발전과 시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혁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과정목표

이러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9년일관과정에서 규정한 국어학습 영역의 과정목표와 기본능력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기본능력/과정목표	본국어문과정(국어영역)
1. 자아에 대한 이해와 발전 잠재능력	언어문자를 응용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학습공간을 발전시킨다.
2. 감상, 표현과 창조	어문창작의 흥미를 배양하고 문학작품의 감상과 평가능력을 제고한다.
3. 생애계획과 평생학습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구비하게 하며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진다.
4. 표현, 소통과 나눔	언어문자를 응용하여 정감과 의사를 표현하고 경험을 나누며 견해를 소통한다.
5. 존중, 관심과 단체협조	언어문자를 통해 소통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의 갖가지 상황에 대처한다.
6. 문화학습과 국제적 이해	어문학습을 통해 본국과 외국의 문화습속을 체득한다.
7. 계획, 조직과 실천	언어문자를 응용해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8. 과학기술과 정보의 운용	언어와 과학기술정보를 결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습영역을 확충한다.
9. 적극적인 탐색과 연구	어문탐색의 흥미를 배양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양성한다.
10.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어문을 응용해 독립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과정의 목표는 다음 3개 층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1항에서 3항까지로 학습자 개인적 층면에 속하는 것인데, 학생의 감상능력, 문학작품의 평가능력, 학생개인의 잠재능력의 계발, 평생학습의 기초마련 등 학습자 개인의 심신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4항에서 7항까지로 생활환경의 층면인데, 개인과 사회, 문화의 결합, 즉 생활중심, 사회적 교류, 학생의 본국문화,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의 소통 등 개인과 생활환경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의 층면으로 8항에서 10항까지 어문의 탐색, 어문을 응용한 독립적

사고, 문제해결의 능력 등 개인과 자연, 환경간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3) 단계별 학습내용

九年一貫(1학년-9학년)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1학년에 서 4학년까지, 2단계는 5, 6학년, 3단계는 7학년에 서 9학년까지이고, 이 세 단계의 국어교육의 주요내용은 注音符號(발음기호)의 응용능력, 말하는 능력, 문자 익히기와 쓰기 능력, 독해능력, 작문능력의 배양인데, 이를 위 해 아래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 (1) 「範文教材」(과문)-문체, 문자 풍격, 문자 난이도, 내용성질을 단원별, 혹은 주제별로 계통성 있게 선정하되, 1,2단계에서는 현대문만 선정하 고, 3단계부터 점차적으로(15%-35%) 간단한 문언문을 첨가한다. 또한 한 과는 과문(範文) 외에 감상(欣賞), 이해 지도(導讀), 사고의 기회(思 考問題)를 구비하여야 한다.
- (2) 어문상식과 어문의 기본능력을 배양하는 재료, 즉 어휘, 구형, 문장부호, 문체설명, 문법 등은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통괄적인 계획 하에 학기별, 단원별로 제공한다.
- (3) 주음부호-제1단계에서는 모든 글자에 주음부호를 첨부하고, 2단계에서 는 새 단어와 어려운 글자에 한해 주음을 첨부하며, 3단계에서는 문언 문의 새 단어에만 첨부한다.
- (4) 듣기교육은 독해 단원과 관련되는 교재를 선택하여 듣기 요점(어음, 어 조, 속도, 문형, 입장, 주제)과 듣기 방법(요점과악, 귀납정리, 분석, 판단, 사고, 평가, 계획, 반응)에 맞추어 각 단계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 (5) 말하기교육-독해단원과 관련되는 교재를 선택하여 말하는 요점, 말하는 방식 등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 (6) 글자쓰기교육-1단계에서는 硬筆을 위주로 하되, 3학년부터 硬筆외 붓

글씨도 연습시키며 간단한 글자부터 복잡한 글자로 나아감. 이 단계에서는 기본 필순, 필획과 동시에 정확한 자세와 붓 잡는 방식에 치중함. 2단계에서는 楷書를 익힘. 3단계에서는 行書를 연습시킴. 서예 연습의 격자 규정은 1,2학년은 1.5-2cm의 격자에서 硬筆로 연습, 3학년부터는 8-12cm의 格子에서 大楷 붓글씨 연습, 2단계는 6-7cm의 格子에서 中楷 붓글씨 연습, 7학년부터 中楷, 大楷외 行書연습. 서예교재는 字帖, 연습장을 따로 마련함.

- (7) 독해교육-古今中外의 명저와 향토문학 중 대표적인 작품을 선택하여 문화의 다원성을 인식시키고 이해하며 나아가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단계는 그림과 문자가 각각 반을 차지하는 것이 좋으며, 2,3단계는 실제 수요에 따라 선택한다.
- (8) 작문교육-작문의 기본연습(어귀, 구절변화), 서사기교(확대묘사, 축소묘사, 이어쓰기, 모방하기) 및 작문순서(제목 정하기, 내용구상, 재료선택, 조직, 수정, 수사)등과 연계시키며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작문의 흥미를 배양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다.

4) 교과서

1994년의 교육개혁요구 이후 정부에서 설립한 「교육자문팀」은 2년간의 사회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교과서에 관한 주요의견으로 아래 사항을 제기했다.

- (1) 통일편찬본을 없애고 정부가 과정요강을 수정하여 전면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정부가 심사한 후 발행한다.
- (2) 교사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교사의 전문적인 자주성을 제고한다.
- (3) 정부의 통제와 행정간섭을 감소하고 교육이 국가기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 (4) 향토제재와 본토언어과정을 증가시켜 대륙중심, 대만경시의 기존 과정들을 수정한다.
- (5) 탄력적인 과정을 설치하여 학교본위의 과정 메카니즘을 건립하여 수시로 즉시적인 교육의제에 대응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양성교육, 환경보호교육, 향토교학, 인구교육, 생명교육과 안전교육 등.

이렇게 종전의 國立編譯館에서 일률적으로 편찬하던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에 개방하였는데 주요한 이유는 통일본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만보다는 중국의 역사, 지리, 인물에 편폭을 지나치게 할애하였고 내용도 너무 많아 교사와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石國鈺, 2009: 147-154). 민간 출판사에 개방된 교과서는 교육부가 규정한 9년일관과정의 요강에서 제정한 능력지표와 역시 교육부에서 제정한 편찬원칙에 따라 편찬해야 하며 교재의 선택은 문체의 비율, 작문의 풍격, 문자의 난이도, 내용의 성질에 따라 단원 혹은 주제에 따라 계통성 있는 안배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지침서인 教學指南(교학안내서)는 교학의 요점을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교학취지, 교학목표, 교학준비, 9년일관과정에 맞춘 중대한 의제의 결합, 교재분석, 교학중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요강에 따른 민간 출판사의 여러 판본의 교과서를 내는 방식을 일강다본(一綱多本)방식이라 일컫는데, 2003년 입시와 학습에서 이런 방식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의 불만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다시 관방 판본의 교과서를 출판하여 일강일본(一綱一本)과 일강다본(一綱多本)의 두 정책을 겸하게 되었다. 일강다본(一綱多本) 정책은 원래 학생들에게 더욱 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교사에게 교학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있었지만 입시와 시험의 전통적인 제도의 문제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고등학교 국문교육의 현황

1) 95교과과정(이후 九五課綱이라 표기)의 방향과 국어문의 내용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통괄하는 원칙인 九年一貫과정요강과 대학교양교육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교육부는 2001년(민국 90년) 5월부터 「보통고급중학과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 특색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의 기초교육과 9년일관과정과의 연계
- (2) 후기중등교육 공동핵심과정과의 배합
- (3) 생활소양, 생애발전, 생명가치 3개 층면에 준해 교과과정 계획
- (4) 과목감소병합 원칙에 따라 과목과 점수를 수정
- (5) 학습영역 개념을 채용하여 分科교학을 취함
- (6) 학교본위 교과과정의 정신을 강조하고 선택이수를 개방
- (7) 고등학교법의 규정에 맞추어 졸업 총 학점을 160학점으로 정함

이는 12년일관교과과정 체계의 건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요강을 수정한 것으로 2009년 정식과정으로 채택되었다. 그중 어문영역은 국문, 영문 두 과목을 포함하는데 국문의 내용에 한해서 살펴보면 어문교육이 바로 인문교육이라는 이념에 의거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의 능력 이외 사회와 접촉하며 일상생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문교과서 역시 민간 출판사에 개방하고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한 것 중 교사의 재량에 의해 선택하는데, 95과정에서 수정한 바에 의하면, 範文(과문)은 문언문, 어체문(현대문), 문화경전, 고전시가, 현대 시가로 나누고, 문언문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40편 중 선택하게 되어있다. 그 구성은 先秦시기의 문장 7편, 漢魏六朝 9편, 唐宋 11편, 明清 9편, 대만 고전산문 4편이다. 어체문은 대만신문학 이후의 저명작가의 작품(원주민 작품도 포함)을 위주로 하고 현대 華文작가와 우수한 번역 작품, 고대 작품이라도 현대문에 근접된 것에서 취하며, 문화경전은 論語, 孟子, 墨子, 韓非子, 老子, 莊子에서 차례대로 한 편씩을 선택해서 구성하고, 고전 시가는 각 책마다 1-2과를 배분하고, 현대 시가는 각 책마다 한 과를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보건데 95과정에서 정한 고등학교 국문과정은 이전 과정에 비해 어체문(현대문)의 비율이 높아지고 다원적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점이 그 특색이라 하겠다. 각 학기의 문언문과 백화문 편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항 목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제5학기	제6학기	합계
각 책의 총 과문수	13	13	13	13	13	11	76
문화경전	1	1	1	1	1	1	6
고전시가	1	1	1	1	1	1	6
현대시가	1	1	1	1	1	1	6
어체문	6	6	5.5	5.5	5	4	32
문언문	4	4	4.5	4.5	5	4	26

그 외 국문과목의 선택이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과 목	교 재 선 택	적용학년
지역문학선독	학교 소재지 위주의 지역문학 선택하되 고전문학, 현대문학, 원주민문학, 모어문학을 포함	고1, 고2
소설선독	고전 혹은 현대, 번역 작품을 포함	
論孟선독	전문서적 성격의 문화경전	고2, 고3
어문표현 및 응용	구두강술과 문자로 된 각종 현대어문의 응용문 포함	

IV. 맺는 말-현행 대만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쟁점

이상 대만의 언어 정책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대만의 국어교육 현황을 개괄해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앞서도 언급한 한 바 있듯이 九年一貫정책은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일관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어문 학습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이 갖는 기존정책과의 주요 차이점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영어 학습을 시행하며, 기존의 국어뿐이던 어문학습영역을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 중 하나를 더 선택하게 하여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어문학습의 시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교육 수업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10년간의 시행을 거친 지금까지도 이로 인한 학생들의 국어자질 저하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교재 다원화 정책의 영향인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한 과목

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민간출판사의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다원화된 사고를 배양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정도, 교사 재량의 임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 출판사의 교재를 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실제 상황인데, 이 경우 각 교재의 단원별 배치가 서로 부합되지 않아 체계적인 국어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표준어인 국어의 독보적인 지위가 하락하고, 대만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남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다른 족군의 객가어와 10여개의 원주민어가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 분야에서 민남어가 강세 언어로 떠오르고 있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준어인 국어의 왜소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국어교육의 내용에서도 탈중국화를 초래하여 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고등학교 국어 과정에서는 절반 정도가 문언문이지만 九年一貫과정에서는 그 정도가 차츰 낮아지고 있다. 또한 족군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언어담론이 소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대만어(엄격하게는 민남어)로 쓴 것이 아니면 대만문학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대만의 역사경험과 문학실상에 대한 왜곡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최말순, 2011: 36).

마지막으로 입시문제로 인한 국어교육의 비정상화 문제이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교육개혁정책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대학교의 진학 통로를 다원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신청입학, 추천입학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입학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추천입학의 경우 준비에 따른 학부모와 학교의 부담이 과중하여,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 두 번의 기

본학력시험을 거쳐 그중 나은 성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도 각 대학이 지정하는 과목의 시험을 거쳐 입학이 결정된다. 때문에 시험출제경향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교육을 거꾸로 결정짓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가령 고등학교의 입시시험인 기본학력고사에서 서예와 독해훈련은 제외되므로, 비록 교육부의 교과내용 규정에 이 분야의 지도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각 중학교에서 이 분야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는 실정이며, 이는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12년 국민 의무교육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문제와 교과과정의 연계성을 해결하고 학생실력의 평균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보다 양질의 국어교육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仇志群(1994), 「台灣語言現狀的初步研究」, 中國語文, 1994年第4期, pp.254-257.
- 石國鈺(2008), 「現行語文教育的缺失與改善途徑」, 國立臺東大學語文教育碩士論文.
- 聯合報, 1993.4.1.
- 吳耀明, 馮厚美(2007), 「鄉土語言教學政策形成與實施現況訪談分析」, 屏東教育大學學報26, pp.37-72.
- 林于弘(2006), 『九年一貫國語教科書的檢證與省思』, 臺北, 洪葉文化.
- 林于弘(2010), 「97課綱」與「92課綱」國語文課程「實施要點」對比研究, 國民

* 이 논문은 2011. 10. 30. 투고되었으며, 2011. 11.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1. 12. 9.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教育51卷1期, pp.24-41.

張淑貴(2006), 「近十年來的高中國文教育之研究」, 臺灣師範大學國文教學碩士論文.

張安琪(2006), 「日治時期台灣白話漢文的形成與發展」, 清華大學臺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曾天富(2000), 「日據時期台灣與韓國之文藝大眾化論及其意義」, 韓國學報第16期, 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 pp.179-200.

陳昌維(2002), 「國民中小學九年一貫國語文學習領域課程暫行綱要決策過程之研究」, 國立臺北師範學院碩士論文.

최말순(2007), 「떠오르는 ‘타이완문학」, 플랫폼 통권 6호, 인천문화재단, pp.96-99.

최말순(2011), 「언어문제로 보는 타이완의 정체성」, 플랫폼 29, 인천문화재단, pp.34-39.

許長安(2007), 「台灣的語文政策沿革及語文使用現狀」, 現代語文, pp.4-8.

黃瑞田(2002), 「台灣語言政策演變之研究-以1895年至2001年為例」, 台灣新聞報西子灣副刊(2002.1.31-2.1).

國民教育社群網: <http://teach.eje.edu.tw>

李勤岸(1997), 「語言政策與臺灣獨立」: <http://www.wufi.org.tw/forum/policy.htm>

林清江(1997), 九年一貫課程專案報告」:

<http://www.lsp.s.tyc.edu.tw/teacher/9class.htm>

高級中學課程標準暨課程綱要:

<http://www.edu.tw/HIGH-SCHOOL/index.aspx>

國民中小學國語文、閩南語、客語、原住民語課程綱要:

http://www.edu.tw/EJE/content.aspx?site_content_sn=4420

<국문초록>

대만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 현황

曾天富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누어 대만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머리말에서는 대만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특수성과 그 원인을 소개하였고, 두 번째 단락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개 단계로 나누어 언어 정책의 추이와 각 단계별 초점을 소개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본적으로 국어(mandarin)의 독존적 지위를 과기하고 다족군의 다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락은 국어교육의 현황으로 이 부분은 초중등학교를 포함하는 9년 일관(초등학교1학년-중학교3학년)과정과 고등학교로 나누어 고찰했다. 9년일관 과정의 본국어문교육은 이전의 지나친 암기위주, 생활경험과의 이탈, 점수위주의 평가방식 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인성의 전면적인 발전과 시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는 교과과정이다. 고등학교 국문교육은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통괄하는 원칙인 9년 일관과정과 대학의 교양교육과의 원활한 연계를 목적으로 채택한 95과정에 기초한 것인데, 어문교육이 바로 인문교육이라는 이념에 의거하여 국문기본능력 외 사회와 접촉하며 일상생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대만의 언어 정책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살펴 본 대만의 국어교육 현황에 기초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교육개혁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제어] 언어 정책, 국어교육, 대만연구

<영문초록>

Taiwan's Language Policy and National Language Education Status

Tseng, Tien-fu

The main body is divided into four paragraphs to introduce Taiwan's language policy and national language education status. In the first part of the introducti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aiwan since the modern times and the composition of Taiwanese society are introduced to aid in understanding.

Second paragraph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language policy which divides it into 4 stages from 1945 upto today, and the progress of language policy and the focus per-stage are introduced.

The third paragraph deals with the status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and is divided into the 9-year program including elementary/middle schools (1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3rd grade in middle school) and the high school program.

In the final paragraphs, based on the timeline and current status of the language policy of Taiwan, and the status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of Taiwan as examined in elementary/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controversial issues are organized to introduce the educational reform bill currently in progress.

[Key words] language policy, national language education, Taiwan study